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행동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어린이 주일 메시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처럼 비참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셨다. 「소자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시면서 어린이가 인권을 찾아주셨다.

미국 메사추세츠에 살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1858년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를 샬론의 장미라 부르면서 어린이를 꽃이라 하여 꽃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 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런 존재가 어린이다.

이 꽃은 정성스럽게 가꾸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떨어진다. 아름다운 꽃들이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가출, 부부간의 갈등으로 피지도 못한 채 꺾이 울까 걱정이다. 깨끗하고 향기있는 꽃들이 변하여 거리의 주정뱅이, 강패, 사기꾼이 되고, 음란하고 거짓된 도박꾼이 되는 이유가 어디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를 돌보는 이유는 그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기업처럼 자식은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키워야 한다. 그러므로 자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가치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다. 어린아이들이 당신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을 심어주기도 하며 사랑의 불을 붙여주기도 한다.

어린아이는 가정과 국가에 속했지만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도 국가도 자녀들의 육체적·정신적 학대나 오도는 허락되지 않는다. 굶어죽게 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자녀들이 맺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언행이나 생각을 했다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기업을 소유하는 이는 그 기업을 인하여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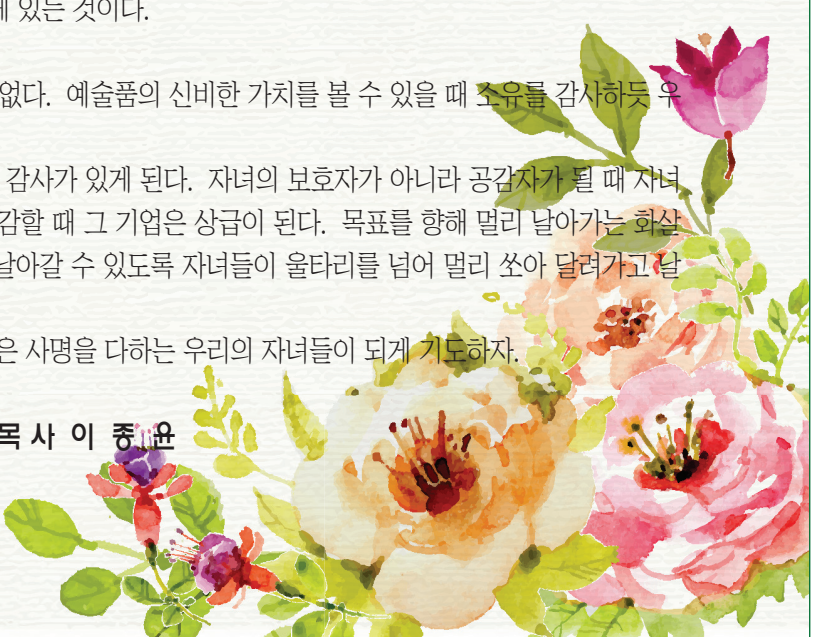
시각 장애인이 그림을 간직할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다. 예술품의 신비한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소유를 감사하듯 우리는 자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때 자녀를 위한 감사가 있게 된다. 자녀의 보호자가 아니라 공감자가 될 때 자녀를 무시하거나 제압하지 않고 어린이에게 감사할 때 즉 공감할 때 그 기업은 상금이 된다. 목표를 향해 멀리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따라 시·공을 초월하여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울타리를 넘어 멀리 쏘아 달려가고 날아가게 하자.

여호와의 기업을 올바르게 가꾸고, 열매를 귀하게 여겨 받은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기도하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원로목사 이종훈



# 박노철 목사 측 불법공동의회에 대한 성명서

**박노철 목사가 끝내 편법에 의한 불법공동의회를 강행하는 것을 개탄한다!**

박노철 목사를 비롯한 그를 따른다는 소수 성도들은 그 동안 안식년제의 이행을 촉구해 온 진정 어린 호소와 충언을 철저히 외면했다. 나아가 박노철 목사는 자신이 안고 있는 신학적·신앙적 문제점들과 목회적 자질 부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신의 정당화 논리와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회를 갈등과 분열의 극심한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편법에 의한 불법공동의회는 박노철 목사가 장로교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립하겠다는 것으로서, 당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가 강행하려는 공동의회 불법성을 인정하고 회개와 공동의회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노력은 짓밟히고 말았다. 서울교회와 당회는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다.

총회헌법상 장로선출은 당회 결의로 노회허락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회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으로 교회가 분쟁 중에는 장로를 선출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명문의 헌법규정과 절대 유일한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 노회가 교회 분쟁 중에 당회 결의 없이 장로선출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교회 당회원 일동과 서울교회 바로 세우기 협의회는 불법공동의회 강행으로 박노철 목사가 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을 주는 것을 규탄하며, 박노철 목사는 이번 사태를 깊이 사죄하며, 공동의회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성도님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참된 교회로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당회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불법공동의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노철 목사는 주님의 어린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커녕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무서운 죄를 통감하고 깊이 회개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본질적인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불법공동의회 강행으로 자신의 측근 15명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그간 박노철 목사가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결단 없이 단지 자신의 자리 보전만을 위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서울교회를 황폐화 하고 있으며,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불법공동의회 사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님을 천명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공동의회는 강행은 결코 박노철 목사가 바른 선택과 결단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성도에 대한 고소고발과 교계는 물론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각서까지 작성해 약속한 안식년제 거부로 교인들이 둘로 나뉜 이 시점에 세 불리기 장로선출 공동의회는 용납될 수 없다.

박노철 목사는 공동의회를 중단하고 당회와 성도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안식년 이행을 위해 신앙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풀어가 수 있는 길을 당회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당회  
서울교회 바로 세우기 협의회

## 서울교회 이름으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

지난 주일 서울교회를 이탈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의회라고 주장하며 참석자의 찬반을 물어 장로를 선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교회 정관을 위배한 저들의 장로 선출에 대해 서울교회로는 원천무효를 천명한다.

당일 투표했다는 이들에 대한 교인 자격여부와 투표권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타 교회 교인들과 적게는 수 개 월에서 몇 년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던 이들이 나타나 집행부에서 미리 알려준 대로 투표를 하고 사라졌다는 제보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울러 선출자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박노철목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서울강남노회 기쁨조임을 천명한 박노철목사와 서울강남노회의 편법 탈법이 동원된 이번 4월 30일 불법공동의회 사태는 반드시 법적으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날 변호사를 배석시켜 공동의회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자신들의 행태에 당당하지 못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리화를 주장하는가. 불법공동의회에 변호사

를 데려다 놓으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가? 서울교회를 거부하고 석 달 넘게 카이로스 빌딩을 예배처소 삼아 자신들만의 집회를 해온 이들은 더 이상 서울교회 교인이라 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그 어떤 행위도 서울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기 바란다.

서울교회에 당회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당회 결의 없는 장로선출, 제직회를 통과하지 않은 장로 후보 선출과 현재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는 이들과 한 마디 통보도 없이 후보로 올려놓고 결국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15명의 장로를 선출한 저들의 행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일말의 가치도 없으나 이들이 아직도 서울교회의 이름으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서울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음에 분노할 뿐이다.

교회를 박차고 나갔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로서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지 교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교인숫자 부풀리기, 장로 머리수 채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라도 알만한 이유 때문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짓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초대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망부(부장 : 손태현 집사)가 스테반회(회장 : 송인수 집사)와 제1, 2 권사회(회장 : 장호림 권사, 김찬진 권사) 후원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소망부와 은빛잔안대, 살롱권사회원과 사라여전도회 및 아브라함 남산교회와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 일 시 : 5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801호 (만나홀)

소망부 교사 일동



##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

### 5월 15일(월)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제51회 학술공개세미나를 “종교개혁의 국제적 영향과 계속되는 개혁운동과의 연관성”이라는 대 주제하에 오는 5월15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첫번째 강의는 “종교개혁자들의 논지 : Sola's 에 대한 이 시대의 이해”라는 제하로 이종윤 원로목사가 맡는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발시 예매 및 실고 방해죄(형법 제192조),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서연아!  
다연아!



유동훈 집사 윤지연 집사(14교구)

먼저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서는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고 만

나는 자마다 복 되고 나도 남에게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나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 중 하나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복된 사람들 중 한 명이면 좋겠어. 서연아 다연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볼게.

먼저 우리 서연이 다연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 들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항상 우리 서연이 다연이가, 우리 하나님과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버려 두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힘겹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기 보다는, 기도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를 구하며 담대히 네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세 번째로는 항상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단순히 우리에게 오는 것 뿐 아니라, 너희들이 각자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기회와 결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 100% 그리고 사람

의 노력 100%가 합쳐져서, 100%를 만들어 내게 하셨거든. 그러니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노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어.

때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내가 오랫동안 원하고 노력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는 때도 있을 꺼야. 그럴 때는 원망도 들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화가 나기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분이시잖아.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 그런 인생의 순간에는 잠깐 휴식하면서, 상황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엄마 아빠는 기도해.

네 번째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닌, 너희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며, 너희들의 인생의 결정에 있어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지원군이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서도 역사 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의 눈 높에서 바라보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 할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서연이 다연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다만 각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 하며,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뿐..... 매일 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믿음의 선생님



장윤기집사 (유년부 부장)

안녕~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유초등부에서 만나지 3개월이 넘었구나. 선생님은 4년 동안 유아부 선생님이로 봉사하다가 오랜만에 유년부에 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이에게 “저희 애기들 아니에요~. 애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했잖아. 근데 어찌지? 선생님 보기에는 아직도 너희들이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애기 같아 보이고 그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너무나 좋단다.

선생님은 말이야 너희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고 감사함을 느낀단다. 2월 5일 주일 오랜만에 교회학교를 다시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20명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날 51명의 친구들을 만났어. 그 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오히려 내 작은 믿음의 그릇과 보아지만 믿는 약한 믿음을 회개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행사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놀랐고, 아침 일찍 나와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예배 끝나고 아버지 주일 특별찬양을 위해 연습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틈날 때 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즐거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서 서울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가 될 텐데 서울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요즘 선생님은 701호 유년부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고 8층에서 먹는 국과 김치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주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하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기도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꿈꾸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순간 감사하며 무럭 무럭 꿈쟁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서울교회의 기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존경 받고 사랑 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

아버이주일  
부모초청예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중 · 고등부 예배에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7년 5월 14일(주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교회 501호(중 · 고등부실)

09:00 ~ 09:45 자녀와 함께 드리는 중 · 고등부 예배

09:45 ~ 10:00 찬양 및 축복의 시간

10:00 ~ 10:10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10:10 ~ 10:30 교역자 및 교사 소개, 특송

10:30 ~ 담임선생님과 만남

\* 부탁의 말씀: 예배는 정확히 오전9시에 시작합니다. 10분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고등부 부장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중등부 부장 김영희 집사 (010-8743-7514)





문화의 기록교회

##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강원도 흥천에서 태어난 전광영집사는 부모님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술대학을 진학한 후 뼈를 깎는 유학생활을 하며 좌절과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 지금이 있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자신에게 실수와 허물을 덮어 주시고 한 없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시라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고백한다.

세계의 유수한 미술가들이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앞세울 때 그는 하나님을 방패삼아 그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어디를 가든 지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힘을 느낀다.

2004년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충성되어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송구하다고 임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 전광영 집사는 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0년 가까이 부인 김인숙권사(제2권사회 부회장)와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할머니께서 성경책을 들고 시집 오시므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전광영집사 가정은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다. 미술공부를 반대하던 부모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할 때 언제나 마음 한 편을 지켜주셨던 따뜻한 할머니는 전광영 집사의 신앙의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이다.

고향 흥천에 있는 큰할아버지 한약방의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렸던 약봉지를 보는 순간 그의 미술가로서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전광영집사는 2009년 문화예술상 미술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당당히 수상하였다.

그는 한지 작업을 통하여 조국의 아픔과 균열, 그러나 치유와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 한다. 삼각으로 자른 수천 개, 수만 개 스티로폼을 약봉지인 양 한지로 하나하나 싸서 끈으로 동여매고, 세모 네모로 정교히 박아 넣고 때로는 돌출시켜 일궈낸 거대 조형물은 50대 무명 화가였던 전광영을 세계 아트페어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르게 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의 유엔본부 로비에서도 볼 수 있으며 호주의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

5월 2일자 조선일보에 큼지막하게 실린 전광영 집사의 벨기에의 전시회 소식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시켜야만 했던 조국의 암울한 정치 현실, 진실한 지도자의 부재와 이단 사이버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잠시나마 시원하고 흐뭇하게 해주었다. 이번 벨기에 전시회에도 훌륭한 결과를 이뤄내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광영집사의 문화선교사로서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5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보고시양 재단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유서 깊은 전시장 '빌라 영광'에서 개인전을 갖는 전광영 집사는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나아가서 한국의 자랑이다.

세계적 문화 후원 단체인 보고시양재단이 그룹전이 아닌 한 명의 작가를 집중 조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호산나대학 선배와 후배가 하나 되는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호산나대학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 50여명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호산나대학 졸업 후 다양한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취업생들이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의 환영식, 재학생 후배들과 간담회,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취업생과 재학생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열리는 선·후배 만남의 날은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호산나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6회 졸업생 최재곤(강남구립요양병원 3년째 근무 중)군은 "학교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 후배들도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해 좋은 곳에 취업하기 바라며 내년에는 함께 왔으면 한다." 라고 후배들에게 말했다.

호산나대학의 부설기관인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자 보수교육, 취업자 캠프, 선·후배 만남의 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동 정

- 특남 : 7교구 차주호 성도 박수련 성도 (차도훈 장로 남태영 권사 장남 가정)
- 전시회 : 15교구 전광영 집사, 벨기에 보고시양재단 빌라영광 미술관, 5월17일~8월 27일
- 지난주 간식 찬조 및 제공 : 이흥숙 김예환 이용자 정미연 이영희 윤봉준
- 이번 주일 식사 제공 : 안인호 장로 이명신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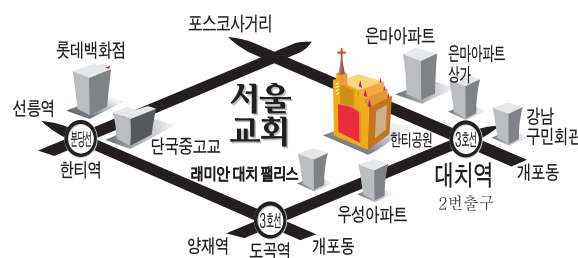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2.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3.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북핵의 위협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